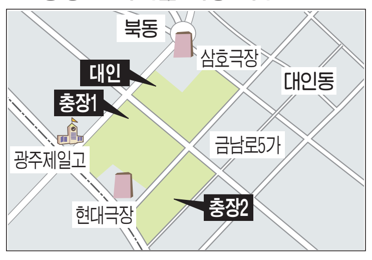
충장로 재개발 사업 비싼 땅값이 걸림돌

■충장로 재개발 예정 지구



동구청이 재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명성예식장 인근 충장 2지구. 충장로 일대는 높은 땅값 때문에 건설업체가 선뜻 재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평당 1,000만~4,000만원… 시공업체 엄두 못내
충장 1,2지구 등 '조합설립추진위' 움직임 없어

도심공동화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충장로의 재개발 사업이 요원(遙遠)해 보인다.

광주시 동구청이 충장로 일대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높은 땅값 때문에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주민들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지난 1997년 '동구 도시정비사업'을 구상하고, 현재 23개 지구(40만9천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계림 5-1지구'(광주고 인근 1만100평)는 '재개발조합'이 구성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학동 3지구'(남선교회 인근 1만8천300평) 등 14곳은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를 만들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장로 인근인 '충장 1지구'(충장로 5가 주차장 인근 2만3천400평)와 '충장 2지구'(명성예식장 인근 1만5천200평), '대인 지구'(구 터미널 인근 1만8천800평) 등 3곳은 아직까지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충장로의 땅값이 다른 지구에 비해 크게 높아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현재 충장로 인근의 땅값이 평당 1천만~4천만원으로, 다른 지구의 200만~300만원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상업지역인 충장로 일대를 재개발하려면 전체 면적의 10%를 상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충장로 상권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주고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주민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장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보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테마지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광주시의 현실을 고려해 대형 관광호텔을 짓거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충장로 일대 소유자들은 대부분 재개발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충장로 일대의 재개발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13 동아시아 경기대회' 광주시, 유치 경쟁 본격화

각계 30명 추진委 구성키로

광주시가 동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3 동아시아 경기대회(6회)' 유치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4일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의향서를 조만간 대한체육회(KOC)에 제출한 뒤 이달 말까지 30명 안팎으로 각계 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한국과 중국·일본·북한·몽골 등 동아시아 10개국이 회원국인 대회로 육상과 수영· 축구 등 16개 종목에서 3천여명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4년 단위로 열리는 이 대회는 지난 93년 중국 상하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부산(2회)과 일본 오사카(3회), 중국 마카오(4회) 등에서 열렸으며 2009년(5회) 대회는 홍콩에서 열린다.

제6회 대회는 내년 6월 동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EAGA)총회에서 확정되며 KOC는 연말까지 국내 후보도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시 위상제고와 국제교류 확대, 취약한 체육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노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 이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옛 전남지사 공관 '미술관 변신'

서구 농성동 5천여평… 9월부터 대대적 리모델링

옛 전남지사 공관이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4일 "서구 농성동 옛 전남지사 공관을 도심공원 속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공원계획변경과 실시설계 등을 거친 뒤 9월부터 4억5천여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 내년초 개관할 계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분관(分館)이 될 옛 지사 공관은 1·2층에는 전시실과 관리실 등이 들어서며, 주변 정원에는 휴게실·산책로·광장 등이 조성돼 문화와 휴식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변모된다.

지난 1982년 서구 농성동 5천483평에 연면적 528평·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옛 전남지사 공관은 1층은 회의장으로, 2층은 연회장으로 쓰이다가 문민정부 이후 전남도립국극단 공연장으로 활용됐다. 이후 전남도는 152억여원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아파트 부지로 매각했으나 시는 도심속 녹지공간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보존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7월 192억여원에 부지를 사들인 뒤 '남도소리당'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아파트 부지와 실내 소리당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된 끝에 결국 미술관과 공원으로 바뀌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中 광저우시 상징물 '오양동상'

광주시가 4일 중국 광저우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시청 민원홀에서 제막식을 가진 광저우시 기념상징물인 오양동상(五羊銅像). 무게 75㎏, 높이 110㎝로 광저우시 월수공원에 있는 오양석상을 축소시켜 청동으로 제작했다. 〈광주시청 제공〉

동구민 생활체육대회 8일 용산동 체육공원

광주시 동구청은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개장을 기념, 오는 8일 공원에서 '제 4회 동구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체육대회에는 유태명 동구청장과 구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하며, 축구·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구청은 지난 2003년부터 45억원(국비 10억원·시비 10억원·구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산동 동산타워 아파트~제2순환도로 소태I.C 사이 5천730평에 생활체육공원을 건립, 지난 1일 완공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용산동 공원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삼성광주전자 등 3개 업체 광주지방노동청 '職訓' 협약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이하 노동청)은 5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삼성광주전자(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와 직업훈련 협약식을 체결한다.

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광주전자(주) 등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다"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5일)	
이기연	226-6755
●법무사회 법률상담(5일)	
이주환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